



한·중앙아시아 경제협력 전략과 과제

이 재 영 연구조정실장 (lji@kiep.go.kr, Tel: 3460-1089)

1. 이명박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의미
2.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정책과 발전 전망
3.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경제협력 현황과 평가
4. 중앙아시아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방안

주요 내용

- ▶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주요 2개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.
- ▶ 이번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주요 2개국 순방은 수교 이후 17년 간의 협력관계 점검, 보다 높은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및 '신(新)아시아 외교 구상'의 구체화 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.
- ▶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산업 현대화·다각화를 추진하면서 각종 인프라 개발, 중소기업 육성, 농촌개발 등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,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거대 신흥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.
- ▶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경제협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, 아직 상호 보유한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중앙아시아 각국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접근전략을 구사할 필요성이 있음.
 -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나보이(Navoi) 산업경제특구 참여, 수르길 가스전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까다로운 환전 및 비자문제 등의 해결이 시급한 과제임.
 - 카자흐스탄의 경우 에너지·광물자원 개발 및 가공부문의 협력 확대, 농업 및 임업분야의 협력 확대, 발하쉬 화력 발전소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확실한 보장체계 구축, 의료협력사업 추진 등이 중요함.
- ▶ 이와 동시에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종합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함.
 - 현재 차관급 수준의 『한·중앙아 협력포럼』을 점차 부총리 및 총리급 수준의 정례회담으로 격상
 - 산업 현대화 및 다각화를 추진하는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 정부 모두 중소기업 육성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, 한국의 '중소기업 인큐베이터'를 현지에 설치·운영하여,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진출확대 모색
 -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감안하여, 현지에 '한국·중앙아시아 연구센터'를 개설하여 향후 심층적인 연구 및 네트워크 강화사업의 교두보로 활용
 - 한국의 경제개발 및 개방 경험 공유 등 소프트웨어 협력사업 확대
 - 국별 중장기 액션 플랜을 마련하여, 실용적인 측면에서 가능하고 상징성 높은 사업부터 추진

1. 이명박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의미

■ 중앙아시아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전략적 협력방안 모색

- 역사적으로 중앙아시아는 동양과 서양, 기독교와 이슬람 문명이 교차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교역로(실크로드)의 중심지
- 최근 유라시아대륙의 전략적 요충지로 재부상한 중앙아시아 지역은 풍부한 에너지자원, 교통·운송 거점, 중·러·인도 등이 교차하는 배후지로서 향후 거대 신흥시장으로 부상 가능
- 세계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중국, 일본, 유럽 등은 공격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진출, 특히 중국은 다방면으로 진출 가시화
- 중앙아시아 5개국 중 부존자원, 시장성, 성장성, 경제발전 잠재력,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할 경우, 한국의 우선적인 협력 대상국은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 등 2개국임.

■ 이번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2개국 순방은 동 지역의 주요 국가들과 한 단계 높은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과 '신(新)아시아 외교 구상'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기회

- 수교 이후 17년간 다져왔던 양자 협력관계를 점검하고,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국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산업 현대화 및 다각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, 자원외교를 강화함으로써 한 단계 높은 전략적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계기
- * '제2의 중동'이라 불리는 중앙아시아의 자원개발 참여 확대 및 한·중앙아시아 CEPA 혹은 FTA 체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 등 통상외교 강화
- 아시아 외교의 지평을 중앙아시아까지 넓히고 외교안보, 문화 등으로 협력범위를 확대하여,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동 지역에 확산함으로써 한·중앙아시아 국제공조 및 한국의 역할 강화
- * 예컨대, 중앙아시아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중간규모 국가라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하며, 향후 '유라시아 비핵-평화-경제 연대' 협력을 통해 한국의 다자안보벨트 지역으로서의 가능성 다대
- 철도, 에너지, 농업 협력 조건을 두루 구비하고 있는 중앙

아시아 순방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9월 말 러시아 국빈 방문시 제시한 유라시아 '3대 실크로드' 구상의 실현에도 크게 기여하는 계기

- 약 35만 명의 현지 고려인과 모국의 유대 강화를 통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700만 해외동포 네트워크 및 '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' 사업을 활성화하여 우리의 국가역량 강화 계기

2.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정책과 발전 전망

가. 경제 현황과 정책

■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카자흐스탄을 제외하고는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이 비교적 미미

- 2008년 경제성장률은 우즈베키스탄 9%, 카자흐스탄 3.4%

■ 중앙아시아 2개국 정부는 경제위기 대처 프로그램뿐 아니라 위기 이후의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

-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8년 말 『反위기 프로그램(2009~2012년)』을 발표하고, 총 240억 달러의 300개 이상 프로젝트를 선정
 - 산업 다각화 및 에너지·금속기계·식품·경공업 분야의 설비 현대화 추진, 중소기업 육성, 농촌지역 개발 및 제조업 확대, 공항·철도·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
- * 나보이(Navoi)市 국제운송 허브(Hub) 구축, 남부~북부지역(테르메즈~카라칼팍 자치공화국) 연결 자동차 도로건설 등
-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8년 11월 『反위기 프로그램』을 발표하고, GDP 대비 약 10%에 해당하는 100억 달러 지원을 결정
 - 금융산업, 주택건설, 중소기업, 농업, 혁신기술 분야 등 5개 부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핵심이며, 산업 현대화·다각화를 통한 수출 확대 및 인프라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
- * 총 390개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제시하고, 산업무역부를 통해 215개 프로젝트에 이미 예산 배정(이 중 132개 프로젝트가 농업부문에 해당)

나. 중장기 경제발전 전망

■ 중앙아시아 2개국의 중장기 경제전망은 낙관적임.

- Global Insight는 2020년까지 중앙아시아 2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4.4%로 전망

* 이는 보수적인 전망치로 세계경제가 회복되어 에너지가격이 상승할 경우, 중앙아시아의 주요 에너지·광물자원 부국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장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.

표 1. 유라시아대륙 주요국의 GDP성장률 전망

	중국	인도	러시아	중앙아시아 2개국 ^{주)}	세계 전체
2001~2010	9.5	7.0	5.1	9.7	2.3
2011~2020	8.4	7.1	3.9	4.4	3.8

주: 중앙아시아 2개국은 카자흐스탄, 우즈베키스탄을 의미.
자료: Global Insight(2009, 4, 17).

- 아래와 같은 점에서 2020년까지 중앙아시아 2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6~7%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임.
-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대국으로서 산업이 골고루 발달되어 있으며, 최근 들어 FDI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경제발전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.
- 카자흐스탄은 당분간 에너지·금속산업에 크게 의존하겠지만, 현재 상당한 정도의 외환보유고(196억 달러)와 국부펀드(223억 달러)를 보유하고 있어, 향후 산업 현대화 및 다각화 추진에 많은 성과 가능
- 중앙아시아 2개국은 현재의 후진적 경제구조의 자원부국에서 2020년경 산업 현대화 및 다각화가 진전된 거대 신흥시장 부상 전망

3.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경제협력 현황과 평가

가. 경제협력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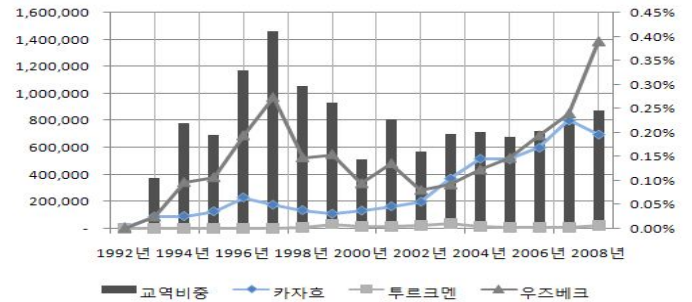
- 한국의 중앙아시아 주요 2개국과의 교역은 2005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

- 2008년 한국과 중앙아시아 2개국 간의 교역량은 약 21억 달러로 한국의 대세계 교역량의 0.24%에 불과하나, 2000년 이후 그 증가율은 한국의 평균을 훨씬 상회함.

* 2000~08년 동안 한국의 총 교역량이 연평균 13% 증가한 반면, 중앙아시아 2개국과의 교역량은 20%를 상회

그림 1. 중앙아시아 주요국과의 교역규모 추이와 교역 비중

(단위: 천 달러)



-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중앙아시아 주요 수출품은 승용차, 자동차 부품, 기계류, 합성수지, 편직물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철강 및 광물 제품, 우라늄, 직물제 의류 및 기타 섬유제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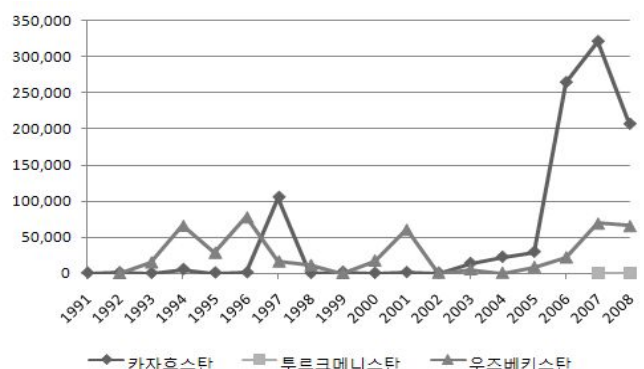
- 2008년 말 현재, 한국의 대중중앙아시아 총 누적투자금액은 약 16억 달러로, 전 세계 누적투자 대비 1.3%에 불과

- 이 중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 2개국에 대한 투자는 약 14억 달러로 전 세계 누적투자 대비 1.2%

* 이 가운데 63%는 카자흐스탄, 30%는 우즈베키스탄에 집중 투자되었음.

한국의 중앙아시아 주요국 투자동향(투자금액 기준)

(단위: 천 달러)



- 2008년 한국의 전 세계 투자가 2000년 대비 약 20% 증가한 반면, 대카자흐스탄 투자는 122%, 우즈베키스탄은 18% 증가
- 2006년부터 건설업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, 광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다가, 2008년에는 신규 법인 수 및 투자금액 모두 전년에 비해 감소
- 대카자흐스탄 투자는 아파트 건설과 원유가스 채굴업 부문에 집중되고, 대우즈베키스탄 투자는 제조업(자동차, 섬유제품), 정보통신 서비스업에 집중
- 한국의 관심이 높은 광업부문의 경우, 2004년 이후 금·은, 건설용 석재, 비철금속, 비금속광물 등에도 투자가 이루어짐.
- * 전 세계 대비 중앙아시아 2개국에 대한 광업부문 투자 비중은 약 1.3%에 불과

나. 경제협력 평가

-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협력 규모는 아직 상호 보완한 잠재력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.
- 예컨대, 2008년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교역량은 약 7억 달러에 불과한 반면, 일본은 17억 달러, 중국은 175억 달러를 기록
- 직접투자의 경우 대기업들의 진출이 부진하여 과거 대우자동차와 같은 대규모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- 한국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에너지자원 개발 분야에서 탐사 외에 실제 생산에 들어간 유·가스전은 존재하지 않아 아직 초보적인 협력 수준이며, 중국과 러시아 등에 비해 매우 뒤떨어진 실정
- *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-우즈베키스탄-카자흐스탄-중국 서부지역으로 연결되는 가스관을 이미 건설 중이고, 우즈베키스탄 석유화학산업 현대화 지원사업을 추진 중임.
- 중앙아시아 2개국의 미흡한 정치 및 사업 여건이 경제협력 확대에 장애로 작용
- 수익성은 높은 편이나 관료주의 팽배, 낮은 대외개방도, 현지통화의 태환 및 과실송금 제약(우즈베키스탄), 인프라 미비 등 전반적으로 사업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함.

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협력방안 수립 미비

- 중앙아시아 2개국은 각각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수립, 중점육성 산업을 선정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나, 이에 우리가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음.
- 한국은 에너지 확보와 시장개척에 치중한 반면, 중앙아시아 국가는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과 기술의 확보에 주안점을 두면서 상호 협력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.

■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, 공식적인 정부차원의 행사 외에 다양한 채널의 인적 인프라 구축이 미흡

- 한·중앙아시아 비즈니스 포럼 개최 혹은 국회차원의 통상채널 구축 등이 활성화되지 못했음.
- * 일본과 러시아의 경우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양자간 비즈니스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

4. 중앙아시아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방안

가.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협력방안

■ 나보이(Navoi) 산업경제특구에서의 전략적 협력방안 고려

-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8년 12월 나보이 산업경제특구를 설치하여 국제공항 허브 구축, 섬유·자동차 부품·가전제품·경공업·금속가공업·화학·플라스틱 산업 등 유치 예정
- 특히 동 사업은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의 숙원사업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관심이 지대함.
- 현재 EU, 일본,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은 관망하고 있으나,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경우 향후 중앙아시아 지역의 물류·운송 사업에 선점 효과 기대

■ 양국간 대표적 자원협력 사업인 '수르길' 가스전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

- 최근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에 공급하는 가스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한 데 이어, 중앙아시아 역내국가들에 대해서도

인상하기로 합의함으로써, 향후 가스부문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.

- 2008년 5월 한·우즈베키스탄 가스공사간 합작회사(50:50)를 설립하여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나, 공사지역의 낙후된 인프라, 우즈베키스탄 측의 통관 지연 및 인사권 남용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.
- 양국간 대표적인 자원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책을 유도하여 성공 모델로 만들어야 함.

■ 농촌지역 개발사업 참여

-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9년을 ‘농촌지역 개발의 해’로 선포하여 농촌지역 개발에 매진
- 농촌 학교시설, 식수시설, 전기공급 등 사회인프라 정비와 관개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어 동 분야의 협력 유망

■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

- 현지통화인 솜화의 달러화 환전 문제와 심각한 비자문제 해결이 시급
- * 환전을 위해 수개월씩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며, 현지기업 및 지상사 대표의 비자기간은 1년, 일반 직원은 3~6개월이라서 사업활동 곤란

나.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협력 방안

■ 에너지·광물자원 개발 및 가공 부문의 협력 확대

- 카자흐스탄 측은 카스피해 석유개발 협력에는 관심이 낮지만, 우라늄 등 광물자원 개발 및 높은 수준의 금속가공 분야 협력에는 관심이 지대함.
- 석유가공제품, 액화가스, 우라늄을 비롯한 각종 광물 가공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의 협력을 원하고 있어 이 분야 진출 필요

■ 농업 및 임업 분야의 협력 확대

- 농업 및 농업기술 분야의 협력을 통해 해외식량기지 확보 및 해외시장 판매

- 밀, 감자, 야채 등의 생산, 저장, 가공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예, 야채 비닐하우스 재배 등 고부가가치 사업 등 농업협력 확대

* 한국의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같은 시스템 이전 유망

- 녹색사업 프로젝트(Green Business Project) 추진

- 현지진출 한국기업 주도로 추진 중인 조경 및 조림 프로젝트 지원 및 관련 사업의 확대

* 한국·인도네시아 산림청 간 70만ha의 조림에 합의, 일본의 경우 몽골에 대규모 조림단지 조성 추진 등의 사례

■ 발하쉬 화력발전소 건설의 성사를 위한 확실한 보장체계 구축

- 2009년 3월 한국의 ‘한국전력’, ‘삼성 C&T’와 카자흐스탄의 ‘삼룩에네르고’社は 카자흐스탄 남부지역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47억 달러 규모의 발하쉬 화력발전소 건설 원칙에 합의
- 향후 카자흐스탄 측과 전력가격 책정 및 구매보증, 석탄공급 보장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, 너무 서두르지 말고 카자흐스탄 정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조치 필요

■ 카자흐스탄의 열악한 병원운영체제 지원 등의 의료협력사업 추진

-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100개 병원 설립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인바, 한국은 ODA 자금을 통해 카자흐스탄 의료운영시스템 지원 필요
- 카자흐스탄은 건물, 한국은 의료진 및 운영시스템 제공 (Software 협력)
- 동 사업의 성공은 카자흐스탄 내 한국 이미지 제고, 국내 의료진과 의료장비의 해외진출을 통한 미래 수익 창출, 대표적 ODA 모델 프로젝트로서 향후 다른 개도국 확산 등 파급효과 지대

다. 한·중앙아시아 종합협력 방안

■ 정치적 유대 강화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확대

-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고도의 권위주의적인 정권임을 감안하면, 정상 등 고위급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원활한 진출 여건 조성이 중요

- 현재 차관급 수준의 『한·중앙아 협력포럼』의 내실을 기함과 동시에 점차 부총리 및 총리급 수준의 정례회담으로 격상 필요

- 또한 한국에 우호적인 1세대 지도자의 성향을 2세대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정계·재계·관계 핵심 지도층 및 차세대 리더를 중심으로 교류확대 절실

- * 특히 양국 기업인 간의 『한·중앙아 비즈니스 포럼』 확대 및 정례화 필요

■ 한국의 『중소기업 인큐베이터』를 현지에 설치하여 운영

-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중앙아시아 2개국 정부는 공히 혁신기술 도입과 중소기업 육성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, 한국의 중소기업 인큐베이터를 현지에 설치·운영하여,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진출의 확대 모색

-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협력을 원하고 있는, IT·농축산물 가공·섬유·전자재 분야 등의 중소기업 진출이 유망

■ 중앙아시아 현지에 (가칭) 『한국·중앙아시아 연구센터』 개설

-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감안하여 예컨대, 지리적으로 중앙아의 중심인 우즈베키스탄에 동 센터를 개설하여 향후 심층적인 연구 및 네트워크 강화사업의 교두보로 활용

- 동 센터의 개설은 향후 『한·중앙아 협력포럼』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■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공유 등을 통한 소프트웨어 협력 확대

- 한국의 ‘경제개발·개방경험 공유’를 확대하여 성장 잠재력이 큰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구축

- *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, 새마을운동, 중소기업 육성정책 경험 등을 전수하고, WTO 가입 지원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정책방향으로 유도

■ 한·중앙아시아 양자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국가간 중장기 액션 플랜(Action Plan) 마련

-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단기, 중기, 장기 협력 프로그램을 담은 국가간 액션 플랜을 마련하여, 실용적인 측면에서 가능하고 상징성 높은 사업부터 추진 **KIEP**